

第55回 發明教室

9月 10日, 成功事例 등 發表

- … 本會는 지난 9月 10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55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. ……○
- …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…○
- …하여 성황을 이루었다.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M·I·T企業(株) 朴仁求 사장과…○
- …(株)スマイル上社 金鍾年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「工業…○
- …所有權制度」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. ……○
- …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. ……〈金白煥 記〉…○

スマイル 温度 젓병의 發明

(株)スマイル上社 金 鍾 年 사장

『適正溫度 37°C면 아라비아 솟
■와 아기의 웃는 모습이 녹색으로
나타나므로 우유의 溫度 가늠이 가
능하지요.』

최근 장안의 話題가 되고 있는
『スマイル 温度 젓병』의 發明人인
(株)スマイル上社 金鍾年사장은 첫
發明으로 만루홈런을 날렸다.

金사장은 스마일 温度 젓병이 生
産되기가 무섭게 날개 돋힌듯 팔리
고 있다며 출거워 하고 있다.

金사장이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
은 지난 86年初, 아기에게 우유를
먹일때에는 알맞는 温度가 꼭 필요
하고, 温度의 변화에 따라 色相이
변한다는 새로운 物質에 대한 호기
심과 이를 實用化해 보고자 會社까
지 그만두고 研究에 몰두하면서 부
터였다.

『資料를 蒐集하고, 分析하고, 生
活의 便利함에 목표를 두고 發明에
주력하였으나 理論的 設計 및 技
術力 등의 부족으로 1年餘의 세월만
허송했지요.』

그러나 계속적인 研究로 「할 수

있다」는 자신감과 技術理事(高明
숙)의 도움으로 87年 後半부터 본
격적인 開發이 진행되어 스마일 温
度 젓병을 誕生시켰다는 金사장의
說明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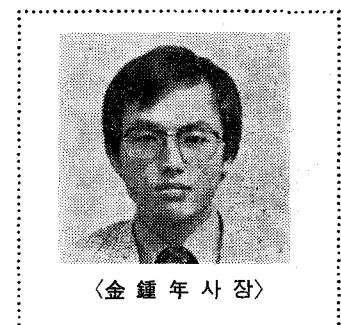
金사장에 따르면 授乳하는 温度
의 測定方法이 종래에는 엄마가 손
등에 떨어뜨려보거나 직접 입으로
빨아 보야 不正確할 뿐만아니라 면
역이 약한 아기에게 전염병을 옮길
우려가 있었다는 것.

이에따라 金사장은 科學的이며
衛生的인 授乳溫度의 測定을 위해
正確한 温度가 표시되는 温度 젓병
을 開發하였다고 말했다.

金사장이 市場에 내놓은 스마일
溫度 젓병은 야간에도 授乳를 할 때
젖병의 위치를 알기쉽게 할뿐만 아
니라 적정 温度를 알 수 있도록 夜
光처리까지 되어 있다.

『スマイル上사는 温度 젓병을 시작
으로 각종 幼兒用品을 시리즈로 내
놓을 계획입니다.』

이를위해 實用新案 1건, 意匠 3
건, 商標 1건등을 出願해 일부는



〈金鍾年 사장〉

登録까지 完了되었다는 것. 여기에
소요된 研究費만도 3천만원에 이르
고 있다. 그러나 温度計에 사용하
는 액정은 아직도 輸入에 의존하고
있는 실정이다.

『액정 開發이 최선의 목표지요.』
金사장은 尖端分野인 액정개발을
위한 청사진 마련에 밤잠을 설치고
있다. 自社의 設備로는 도저히 불가
능한 일이지만 액정의 自體開發, 生
產만이 스마일上사를 중견기업으로
끌어 올리는 첨경이라고 믿고 있
다. 〈End〉